

불자 세상보기



이강렬
극작가, 경기대 겸임교수

문화의 세기인 지금의 우리가 세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적인 감수성을 키워나가야 한다. 문화예술이 국력이 된다는 것을 아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문화와 예술을 중요한 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서울은 오랜 역사의 자취가 있는 전통사찰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독자성이 넘치는 건물들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주고 있다. 사찰은 단순한 건물의 차원을 넘어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과 정신, 예술, 학문이자 삶의 방식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통합유산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서 현대적인 미감을 갖춘 건축물뿐만 아니라 전통적 풍경을 담은 지역에 조화롭게 개성이 넘치는 건물들이 설립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삶의 터전을 보다 살기 좋은 곳,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인

역사의 아름다움이 넘실대는 서울로

간이 공간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공간 환경은 인간에 의해 창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건축물 역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문화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며 한 시대와 그 사회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유지시키는 기반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그동안 우리의 문화예술 정책과 예술창조 논리는 경제논리에 순응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의 시장논리의 팽창은 더욱 더 문화정책을 시장 일반논리의 경제정책에 연동시켰고, 상업성을 지향하는 논리는 문화의 정체성은 물론 우리의 고유한 삶의 가치관과 잠재력을 제한했다. 서울시도 미래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만들어져 실행되고 있다. 서울을 우리의 고유한 것을 통해 특별한 브랜드 가치가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특히 국내외에 이목이 집중하고 있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는 분명 명소가 될 것이다. 이곳에서는 세계적인 유명 디자인 전시회가 개최되고 소개하는 디자인 메카로 거듭날 계획이다. 한마디로 말해 디자인을 통해 삶의 질

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뉴욕타임즈(NYT)는 '꼭 가봐야 할 도시나 국가' 31곳 가운데 서울을 세 번째로 꼽고 있다. 베이징이나 도쿄 등 아시아의 인근 나라들은 서울이 가보고 싶은 도시 1위라고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주요 관심은 우리의 전통문화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적인 것을 가장 보고 싶어하기에 이미지를 높이는 데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중요하다. 한마디로 말해 전통문화의 가치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일이 한국의 이미지를 신장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조계사는 북촌 및 인사동과 함께 종묘, 창덕궁, 경복궁, 경희궁 그리고 덕수궁으로 이어지는 서울의 부도심 문화벨트의 중심에 있는 역사적인 장소다. 경내의 주 건물인 대웅전과 인접한 우정국 건물은 각각 서울시 유형문화재와 사적 제 213호로 지정되어 있는 전통양식의 건물이다. 가치장소는 이미 존재하던 것에서 새 효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새 가치를 창조하려면 세상의 변화를 읽어내고 예측해야

한다. 그러나 변화의 흐름을 읽어낸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워낙 빠른 문화적 흐름과 급세 실증을 내는 유행 탓에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조차 힘겨운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오로만 변화와 경쟁력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전통을 무시하고 새로운 것만을 추구한다면 디자인은 그저 하나의 예술행위로 전락하고 만다. 공간 디자인은 이제 도시의 부가 가치를 창출해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서울은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통 사찰을 중심으로 도시 환경을 새롭게 바꿔나가야 한다. 우리의 전통이 갖는 매력적인 디자인이 담긴 건축물은 기꺼이 그 일부가 되고 싶은 정도의 감성을 자아낸다. 정보사회에서 경제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환경과 사람이다. 환경과 사람이 살아가는 멋진 도시의 배경은 무엇일까. 전통사찰은 종교와 자연, 역사가 어우러진 복합 문화유산이다. 사찰을 새롭게 되살리고, 도시와 어울린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활력을 안겨줄 수 있는 가치를 재건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요청된다.

社說

말이 혼을 살리고, 지명이 혼을 지킨다

서울 도선동(道諺洞)과 부산 연산동(蓮山洞), 강화군 양사면(兩寺面), 광주 염주동(念珠洞) 등은 불교 지명이다. 새 도로명 주소 사업으로 사라질 것들이기도 하다. 박호석 법사가 최근 펴낸 <불교에서 유래한 상용어 지명 사전>에 따르면 이 같은 지명은 540여 곳에 달한다. 또, 마음을 거문고에 비유한 심금(心琴)이나 늘 있는 예사로운 일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다반사(茶飯事) 등은 불가에서 유래해 일반인이 널리 쓰고 있는 말들이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불교용어 가운데 참회(懺悔)는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깨닫고 깊이 뉘우친다는 뜻의 용어이다. 산스크리트어 크샤마(kṣama)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를 어느 사전은 "죄를 뉘우쳐 하느님에게 고백하는 일"로 고쳐 정의하고 있다. 언어학자 소쉬르(Saussure)는 "언어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약속이므로 개인의 힘으로 쉽게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른바 언어의 불역성·사회성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말이 바뀌고 있다. 사회가 바뀐 까닭이다. 불자수가 줄고, 불교의 영향력이 줄면서 불교 용어는 하나둘씩 이웃종교의 차지가 됐다. 교회 천당 장로 집사 전도 등이 그 예이다. 급기야 1600년간 불교가 우리 땅에서 우리 민족과 습합하면서 땅 이름으로 도드라졌던 것마저 새 도로명 주소 사업으로 사라지게 됐다. 민족혼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한편에서는 새 도로명 주소 사업의 문제점을 불교계에 처음 제기했던 박호석 법사가 조계종 결사추진본부가 주최한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문제 제기자의 관련 행사 초청은 관행일 정도로 상징적이고 당

연지사이다. 더욱이 박 법사는 불교계의 어느 누구도 그동안 하지 못했던 우리말 속의 불교용어와 불교에서 유래된 지명을 정리한 인물이다. "종단에 비판적이어서 토론회에 부르지 않은 것 같다"는 박 법사의 진술은 차치하고, 조계종 측은 "이웃종교와의 갈등을 우려해 토론회에서 불교색을 배제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봉은사길 봉은사길 운문사길 등에 위치해 사찰명을 주소로 쓸 수밖에 없는 교회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함이라고는 해도, 이유가 어찌됐건 한국불교 장자 종단스럽지 못한 처사이다. 다행스럽고도 분명한 것은 많은 불자들은 박호석 법사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29일 새 도로명 주소를 시행한다고 고시했다. 불교계 등의 반발을 의식해 도로명 주소법시행령을 개정해 올 연말까지 도로명 변경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고도 밝혔지만 사실상 강행 의사를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불교계가 행안부의 고시대로 도로명 변경 신청을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인근 교회 등이 얽혀있어 쉽게 풀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14년 동안 3400억원이나 투입된 국가사업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기에는 부담도 적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최근 정부·여당의 2200억원 지원책을 통해 형성된 분홍빛 기류를 스스로 흩어버리는 행동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분명한 것은, 지금 조계종은 민족문화수호를 불교계에 처음 제기했던 박호석 법사가 조계종 결사추진본부가 주최한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문제 제기자의 관련 행사 초청은 관행일 정도로 상징적이고 당

사부대중 칼럼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

한적하고 고요하던 북한산 자락이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둘레길이 생기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북한산 자락으로 물리게 된 까닭이다. 예전 같았으면 인수봉이나 백운대 등 정상에 향해 올라갔을 사람들이었지만 둘레길이 생기면서 굳이 정상을 향해 가지 않는다. 힘들지 않고 산자락을 따라 걷기만 해도 그런대로 산의 정취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전국 곳곳에 둘레길이 생겨나면서 바야흐로 둘레문화가 대세다. 정상을 향해 위로만 올라가던 산행이 수직적 문화였다면 둘레길은 같은 높이에서 옆을 바라보며 주변을 아우르는 수평적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덕분에 가족단위나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산행을 즐기는 이점이 생겨났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둘레길에도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둘레길을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산자락에 대해서만 알

뿐 정상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 애초에 정상을 목표로 하지 않았기에 정상을 향해 가는 일도 없으며, 정상에 오른 적은 더더욱 없기 때문이다. 그저 주변의 풍경만을 경험할 뿐 인수봉이 어떤지 백운대가 어떤지 알 길 없는 것이 둘레길이다. 흥미로운 것은 수행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불교에서 수행은 깨달음이라는 궁극적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다. 하지만 요즘 수행은 깨달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라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마치 둘레길을 걷는 사람들처럼 깨달음의 주변을 맴도는 것으로 수행을 삼는다. 얼마 전 교계신문의 한 기자가 요즘 들어 깨달은 선지식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필자는 깨달음을 목표로 하는 수행자의 부재가 첫 번째 원인이라고 답했다. 출가자는 재가자는 수행은 단지 일상적 삶의 행복을 위한 것일 뿐 생사해탈이라는 목표를 포기한 것이 요즘 분위기다. 깨달음은 그저 신화와 같은 것이 되었으며, 심지어는 깨달음을 언젠가 선방에 앉아 있는 수행자들을 무모한 사람쯤으로 치부하는 분위기도 존재한다. 이틀테면 둘레길이 생기면서 정상을 향

둘레길과 정상

해가는 사람들이 사라진 것처럼 행복한 삶이라는 수행의 둘레길이 생기면서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구경각(究竟覺)을 얻겠다는 목표가 사라졌다. 일상적 삶의 행복이라는 수행의 주변만을 맴돌기에 구경각에 이르는 사람이 없는 것은 자명하다. 수행자들 역시 일상의 삶을 베이스캠프로 삼고 그 주변에서 맴돌 뿐 정상을 향한 공격에는 별 의미를 두지 않는다. 산을 오르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네 밋 하러 힘들게 시간과 공력을 들여서 정상을 지향해야 하는가라는 반론이 소위 합리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만약 정상을 향해 도전하는 산악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에베레스트나 안나푸르나 같은 위대한 산정(山頂)에서 펼쳐지는 풍광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몰랐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생사해탈을 향해 자신의 삶 전체를 걸고, 심지어는 목숨마저 걸고 용맹정진하는 수많은 수행자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이라는 인간정신의 정상에서 펼쳐지는 본지풍광(本地風光)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혹자는 둘레길이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을 수 있고, 어렵고 현실성 없는 구

경각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체험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물론 둘레길이 나쁘고, 일상적 삶의 행복을 위한 수행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둘레길만 돌고, 깨달음의 주변만 맴돌면서 백운대와 구경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주변을 맴도는 것을 통해 설사 지금은 그러저러 넘어갈지 몰라도 생사고해라는 궁극적 속박에서는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무문(無門) 선사는 그런 삶은 마치 초목에 벌 붙어사는 정령과도 같다고 했다. 일상의 삶을 위한 정신적 평온이 아니라 고원한 이상을 향해 전 생애를 던지는 삶에서 수행자의 향기와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했던 위대한 도전이었으며, 현실을 초극하여 스스로가 붓다가 되고자 했던 고요한 이상을 향한 도전이었다. 정상을 향한 원대한 꿈과 마침내 구경각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당찬 도전이 없었다면 해탈도 불가능하다. 누군가는 정상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해야하고, 누군가는 구경각을 향해 끊임없이 용맹정진할 때 비로소 삶의 위대성과 대자유가 실현될 수 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www.hyunbulnews.com
현대불교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www.buddhapia.com
지사안내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사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www.hyunbulshop.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천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공정관리 및 그 실현을 위하여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화제의 신간 사주풀이의 법수 정통사주 자평 명리학의 신화.... 나의 이력서와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나 사람들은 방향하고 있다. 사주명리의 "핵심" 을 찾아라! 누가 운명(運命)을 논(論)하고 숙명(宿命)을 운운(云云)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왜 사주풀이의 법수를 애타게 기다리는가?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오늘날 음양 오행 철학은 지구촌 생활 속에 멘토링이다. 배우지 않아 운명을 알수 없어 고민해지고 이것저것 너무 배워 본성은 어두워지고 있다. 송월스님의 제2탄 드디어 출간! 송월스님 저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